

세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40호 자랑스런 안전인 (주)세신 이민형 차장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어깨위로 떨어진다. 수고한다고 더욱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더없이 포근하다. 그래서 인지 안전인을 만나러 가는 내내 기분이 좋다. 좋은 일이 생기려나?

1990년 2월 5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념하에 양식기 및 주방용품 등을 유통하는 (주)세신(윤성중 대표이사)에 입사하여 15여년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형 차장은 대학시절 화학을 전공하여 폭발병으로 군생활을 하였는데, 그 당시 안전시설 업무를 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안전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근로자의 마인드, 설비 등 모든 것이 부족해 사고는 물론, 안전관리를 함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만의 안전철학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사랑을 담은 진정한 안전!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
잊지 않으려 늘 노력합니다.




입사 초기 선배로부터 선물받은 「손무덤」이라는 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안전관리에 임하라는 교훈을 얻고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안전관리 업무와 더불어 노무관리를 함께 했던 과거의 경험이 안전업무를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사랑을 담은 안전관리야만이 진정한 안전관리로 승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안전관리나 형식에 치우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허울의 안전관리를 배제하고, 근원적인 안전관리만을 고집한다. 생산성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원료 투입구 등 꼭 필요한 부분의 모든 곳에 안전보호망을 설치하여

2000년 이후 프레스 관련 사고를 제로화 시켰다. 또한 매일 오전 1시간씩 노조사무장(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식구들과 눈을 맞추고, 의견을 나누며 더 나은 세신을 위해 나아간다. 진정 가슴을 열고 대화하는 안전인의 참모습이다.

올해 경영학 공부를 새로 시작했다는 그는,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마칠 것이며,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지금처럼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일 큰 바람이라한다. 소박하지만 가슴 따뜻한 그를 만나 그의 웃음과 행복이 시나브로 전염되는 듯 하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안전에 우리 안전인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며, 세신 식구들이 있기에 오늘의 그도 있을 수 있었다며, 그는 마지막 한마디로 인터뷰를 마쳤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성호연 기자〉